

여당, 이래경 논란 총공세... “이재명 사죄·권철승 사퇴”

“호국영령들 모독...현충일에 참담한 심정”

“민주, 혁신 방법은 이래경·추천자와 결별”

국민의힘은 6일 이래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과거 발언 논란으로 임명 9시간 만에 자진사퇴한 것을 고리로 이재명 대표 사과와 권철승 수석대변인 사퇴를 요구하며 총공세를 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호국영령들에 대한 모독을 일삼고 있는 민주당은 대한민국 정당인가, 북한 정당인가”라며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시키며 호국보훈의 의미를 깊이 되새기는 오늘 현충일 기념행사장에서 저는 참담한 심정이었다”고 적었다.

김기현 대표는 “천안함은 자폭한 것”이라고 공공연히 주장하는 인물을 민주당 혁신위원장으로 임명한 이 대표로부터 “천안함 합장은 무슨 낱짝”이라며 “부하들 다 죽이고 어이가 없네”라는 막말 논평으로 호국영령들을 공개 모독한 권철승 수석대변인까지, 민주당 지도부의 반헌법적 행태에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래경 혁신위원장의 사퇴로 끝날 해프닝이 아니다”라며 “이 대표는 천안함 용사들에 대한 모욕적 언행에 대해 국민

앞에 정중히 사죄하시기 바란다. 또한 권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한다”고 압박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전쟁 도발보다 더 슬픈 망언 도발이다. 석고대죄해도 모자랄 판”이라며 “망발보다 더 슬픈 건 민주당 대표의 영혼 없는 해명”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당의 당명 변경 검토 보도를 거론하며 “막말에 막말 더하니 ‘더불어막말당’으로 바꿀 건가. 현충일 망언 도발, ‘없던 일’로 하자고요? 그건 희생자 두 번 울리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마치 작은 해프닝인 양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자리에서 사퇴하면 그만이라 생각하나”라며 “지금 국민이 민주당에게 분노하는 이유는 매번 이렇게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제대로 된 사과나 반성 한번이 없는 뻔뻔한 행태 때문임을 민주당만 모른다”고 꼬집었다.

강 수석대변인은 “권 수석대변인은 진심으로 사죄하고 수석대변인직에서는 사퇴해야 마땅하다”며 “이 대표는 그릇된 인사와 당직자의 망언에 대해 국민과 천안함 용사들

앞에 사과하고 천안함을 대하는 왜곡된 인식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더 큰 문제는 더불어민주당이 천안함 피격 사건을 바라보는 인식”이라며 “천안함 음모론자인 이래경 씨가 임명되었을 때도 그리고 권철승 대변인이 막말을 내뱉었을 때도 당내에서는 아무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천안함 피격으로 나라를 지키던 꽃다운 청년들이 희생됐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안타깝고 고귀한 희생자들의 명에마저 짓밟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신원식 의원은 “친북·중북적 인식에 기초해 천안함 폭침과 관련해 말도 안 되는 억지와 궤변을 주장하고 생존 장병을 비하하거나 반감을 드러내는 이들의 모습은 민주당의 정체성을 의심케 하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이 대표가 천안함 폭침 관련 정부의 공식적 발표를 신뢰한다고 말한 것을 지적하며 “마치 3년 전 서해수호의 날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천안함 폭침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말만은 입에 담지 않으려고 했던 모습의 데자뷰”라며 “민주당과 이 대표는 이번 예순여덟 번째 현충일을 맞아 천안함 폭침이 누구 소행인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말하고 망언들에 대해 사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상훈 의원은 민주당의 혁신 방법으로 “현충일 직전 천안함 자폭 운운하며 9시간만에 줄행랑 친 이래경 혁신위원장을 추천한 사람, 이래경 혁신위원장의 언행을 옹호하는 사람, 그리고 위의 두 사람을 편드는 사람과 결별하라”고 제안하며 “혹여 추천자가 당대표라면 그 사람이 바로 혁신의 대상”이라고 꼬집었다.

김웅 의원은 “합장은 원래 배에서 내리면 안 된다”라는 권 수석대변인의 발언을 지적하며 “우리는 다시 한번 더불어민주당의 586 싸구려 겹침에 일제 군국주의 망령이 깃들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비난했다.

김의원은 “합장이 침몰하는 배와 운명을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은 일본 우익들이 만들어낸 멍청한 망상”이라며 “육일기 단 배가 온다고 난리 치지 마시고 머릿속의 육일기부터 지우시기 바란다”고 일갈했다.

김용태 전 최고위원도 “이 위원장이 사퇴했다고 해서 천안함 용사들과 전체 국군장병을 모욕한 권 수석대변인의 과오가 함께 면죄부를 받을 수는 없다”며 “이 위원장 사퇴에 물어 어영부영 넘어갈 생각일랑 말고 즉시 직을 내려놓으라. 이 대표도 권 의원의 해직을 결단하기 바란다”고 압박했다.

변용일기자

한숙경 전남도의원 ‘폐자원 에너지화 정책 활성화’ 촉구



전남도의회는 최근 제37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한숙경 의원(더불어민주당,

폐기물의 재활용·재사용, 폐자원의 에너지화 정책·제도적 뒷받침 필요

순천7이 대표 발의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폐자원 에너지화 정책 활성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은 머지않아 현실로 다가올 쓰레기 대란을 대비하기 위해 정부가 직매입 제로화 정책을 조속히 추진할 것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폐자원 에너지화 정책을 적극 활성화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페플라스틱 등 폐기물을 수입하던 국가들이 수입 중단을 선언하면서 쓰레기의 해외 수출길이 막혔고, 정부에서도 지난해 7월 폐기물 관리법 시행 규칙을 공포하면서 수도권 3개 시·도는 2026년, 이외 지역은 2030년부터 직매입을 금지했으나, 올해 초 환경부가 발표한 순환경제 정책에는 이에 대한 언급조차 없었다.

하지만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에너지는 회수 효율이 높아 냉·난방 에너지로 재이용할 수 있고, 에너지를 최대로 회수해 사용하는 것은 순환경제를 통해서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일이다.

실제로 유럽·미국·일본 등 선진국은 일찍이 폐자원 에너지화를 포함한 친환경 바이오에너지 기술 개발 및 세계 환경시장 선점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한숙경 의원은 “정부는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4%인 점을 감안하여, 폐기물의 재활용 및 재사용과 더불어 폐자원의 에너지화를 극대화 하도록 정책을 개선하고,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큰 틀에서 자원을 순환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부취재본부김승호기자

신승철 도의원, 전남 청년 지원책 한계 지적



전남도의회 신승철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1)은 최근 제372회 전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인구청년정책관 소관 결산심사에서 “매년 청년들이 전남을 떠나고 있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정주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전남지역 청년 인구의 순유출은

매년 1만여 명 안팎을 보이고 있어 청년지원책의 큰 효과가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10~20만 원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으로 금전적인 지원을 하려면 50만 원씩, 70만 원씩 지원을 확대해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전남도는 “청년들의 정주여건 개선과 취업 지원을 위해 주거비 지원사업, 청년문화센터 건립, 청년농 1만 명 육성 등 파격적인 지원은 아니지만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청년들이 전남을 떠나지 않고 전남에서 생활하고 싶도록 우리 기성세대들이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한다”며 “특히 중요한 일자리, 주거 부분에 대해서는 전남도 정책을 확대 청년들의 안정적인 정착 여건을 조성할 것”을 당부했다.

이슬비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